

광주시, 중증장애인 홀로서기 돕는다

5개년 계획 수립 단계적 지원

주택 배치·지원금 500만원 등

탈시설 장애인 사회적응 도움

‘체험홈’ 운영자 내일까지 모집

앞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주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광주시가 장애인 정책 전반을 대폭 수정했다. 우선 단계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광주지역 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700여 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137명의 자립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6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 확대 운영, 체험홈·자립주택 운영, 탈시설 대상자 맞춤형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자립생활 개인별 욕구조사, 연차별 자립대상 인원과와 등의 내용을 담은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공청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년간 42억원을 투입해 ▲자립생활 주거지원(체험홈, 우리집 운영) ▲자립생활 환경구축(활동지원서비스지원,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원) ▲자립생활 체험 및 훈련(캠프, 단기체험프로그램, 직업훈련교육) ▲건강관리지원

(검강검진, 장애인주치의제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권익옹호기관, 사례 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해 인적개발, 자기결정, 대인관계, 사회통합, 권리, 정서적 안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에서 맡아 ▲자립희망 장애인 개별상담 ▲자립생활주택 배치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 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과 관련, 탈시설 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공고문은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응모자격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다. 7일부터 8일까지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서와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심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 행사·축제 등 소개

1인미디어 18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소셜미디어 운영자의 참여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광주1인미디어 프렌드’를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개인 SNS 회원수 1만명 또는 블로그(네이버)기준 일평균 3000뷰 이상이며, 현장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1인미디어에게는 ▲시 대표 매체에 콘텐츠 채택 시 원고료 지급 ▲주요 행사, 팸투어, 축제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청 소식·고시공고에 있는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yunna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블로그·SNS 공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정찬 시 지역공동체담당장은 “1인미디어들이 생산한 현장취재와 콘텐츠 생산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속가능발전 교육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김병환 상임회장)와 서강고(박주영 교장)는 지난 3~4일 ‘마을’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서강고 캠프’를 열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세계가 직면한 환경, 빈곤, 에너지, 경제 사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문제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삶의 방식과 태도에 변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광주시 인권작품 공모전…일상 속 경험 ‘신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광주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5회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9월1일부터 29일까지 인권수기, 직접 촬영한 사진, 인권도서·영화 후기, 가족 간 인권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권 사례 등 인권을 주제로 한 내용을 ‘인권신문’ 형식으로 제작해 이메일

(gjhr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 가족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5인 이하 공동 출품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UCCLA 표어, 포스터 등으로 접수한 기존 공모전과 차별화해 타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신문’ 형식의

로 작품을 모집하고, 가족이 대화하며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부문을 추가했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4개 부문, 각각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12편을 선정할

다. 수상자에게는 시상 표창과 총 3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0월27일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작품집으로 제작해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홍보,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12월 중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에 전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권평화협력관실(062-613-2065),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터키 삼순 데플림픽대

2017. 8. 4.(금)

광주광역시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4일 터키 삼순에서 귀국한 청각장애인 올림픽 데플림픽대회에 출전한 광주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에서 첫번째 서영춘 선수(볼링), 세번째 김지수 선수(볼링), 여섯번째 윤장현 시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고은 선수(사격), 다섯 번째 박해정 선수(태권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 ‘데플림픽’ 역대 최다 메달 획득

볼링 서영춘 3관왕

청각장애인 올림픽으로 불리는 데플림픽대회에서 올해 광주시 선수단이 전원 메달을 획득하는 등 역대 최다 메달의 기록을 세우고 돌아왔다.

광주시는 6일 “2017 터키 삼순에서 열린 데플림픽대회에 출전한 광주광역시 선수단 환영식을 지난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제경기대회인 데플림픽(Deaflympics)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 청각장애인들의 심신 단련과 유대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삼순에서 열렸으며, 19개 종목에 109개국 5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한국 선수단은 9개 종목 141명, 이 가운데 광주선수단은 볼링, 태권도, 사격 등 3개 부문에 4명이 출전했다.

볼링 남자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서영춘(45) 선수를 포함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10개를 거머쥐며 한국선수단이 3회 연속 종합순위 3위(금18, 은20, 동14)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서영춘 선수는 지난 2013 소피아 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 불혹의 나이에도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오는 9월15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광주선수단으로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볼링의 김지수 선수(금1, 동1)와 태권도 박해정 선수(금2, 은1), 사격 김고은 선수(동1)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해 메달을 획득하는 등 광주시가 신인 유망주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장애인 체육 인재 육성사업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현석기자chadol@

9~10일 시청서 헌혈 참여하세요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시 공직자와 시청 주변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 시민이 함께 하는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6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6~29세의 헌혈 비중이 전체의 73.0%로 집계돼 10~20대가 헌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해마다 방학 시기마다 반복되는 혈액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해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하고, 장기이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광주전남지부,

장기기증재단 등이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 만 69세 이하로 남자는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참가할 수 있다. 헌혈량은 남성 400cc 여성 320cc이며, 전혈 헌혈 후 2개월, 성분 헌혈 후 2주일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다.

광주시는 5년 동안 10회 이상 다회 헌혈자와 장기기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광주시 시설물 이용 감면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이외에도 헌혈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www.bloodinfo.net, 1600-370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헌혈의 집(헌혈가게)’을 방문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정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근 린 시 설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공 장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120평 건물614평 매매가 38억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발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